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미국 뉴저지주, 배출권 거래제도 탈퇴

- 미국 뉴저지주 주지사 Chris Christie는 미국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인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힘.
 - 주지사는 East Coast 탄소시장이 에너지가격의 상승만을 가져왔을 뿐 별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함.
- RGGI에 가입한 주 중에서 뉴저지주는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주이기 때문에 이번 불참발표는 큰 파장을 가져옴.
 - RGGI는 코네티컷, 델러웨어, 메인,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저지 등 10개 주로 구성되었음.
 - 현재 다른 주들도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탈퇴할지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음.
- RGGI는 2009년 메인주에서 메릴랜드주에 이르는 Eastern SeaBoard를 따라 위치한 200개 이상의 화석연료발전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배출권거래를 위한 시장을 만들게 됨.
 - 그러나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함. 이로 인해 10개 회원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에 비해 약 1/3이 감소했으며 이는 배출권 과잉으로 이어짐.
- 2010년 1월 CO₂ 1톤당 2.24달러였던 배출권가격은 2010년 12월 17% 감소한 1톤당 1.87달러를 기록함.

[Oil Daily, 2011.5.27]

일본, 신성장전략실행회의에서 에너지전략 수립 착수

- 일본 정부는 6월 7일 개최된 신성장전략실행회의에서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의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함.
 - 회의에서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의 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1)에너지절약 (2)신재생에너지 (3)자원·연료(화석연료의 효율적인 이용 등) (4)전력시스템(발·송전 분리) (5)원자력(안전검증) (6)에너지·환경산업(고용창출 등)의 6개 부문을 검토할 예정임.
 - 국제적인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원자력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이 목표라고 강조하고, 사실상 원전추진노선의 유지를 시사함.
- 또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정부와 긴밀히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환경회의'(의장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담당대신)를 신성장전략실행회의의 분과회로 설치하고, 구체적인 대책의 논의를 추진하기로 함.
 - 원자력, 전력시스템, 에너지·환경산업의 3개 부문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사고조치·검증위원회의 논의를 고려하면서, 검토를 추진할 방침임. 이번 7월을 목표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정리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결정할 예정임.
 - 올해 안에 '에너지·환경전략'의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경제산업성이 수립할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Reuters; MsnDDNews, 2011.6.7; NHK, 2011.6.8]

일본-인도네시아, 에너지정책 협력관계 강화

-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일본-인도네시아 에너지정책대화'의 결과를 6월 1일 발표함.
 -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정보제공을 약속함.
 - 또한 양국은 원유시장 데이터의 정비 및 전망 공유 등 아시아의 에너지협력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심화해 나가는 데 동의함.
 - 이 외에, 지열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PEC과 CEM(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등의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에도 동의함.
 - 향후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분야에서 자원개발, 사업환경경비 등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함.
- 일본 재무성의 2006년 자료에서는 일본의 인도네시아 수입 규모는 2조 8,069억 엔에 달하며, 이 중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 광물성 연료가 49.8%를 차지함.

(經濟産業相; Searchina, 2011.6.1)

영국 Oxfordshire, 스마트미터 설치로 에너지소비 10% 감소

- Scottish and Southern Energy(SS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스마트미터로 인해 최근 3개월 동안 영국 Oxfordshire의 에너지소비가 10% 감소한 것으로 밝혀짐.
 - 이 프로젝트는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와 영국 전력가스시장 규제기관인 Ofgem(Office of the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의 지원을 받음.
 - SSE 프로젝트는 이 지방 North Leigh 빌리지의 800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했으며, 전력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시간 전력 및 가스 소비정보를 제공함.
- 스마트미터를 통한 에너지소비에 대한 정보제공이 소비자의 현명한 전력사용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

며, SSE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보상으로 North Leigh 빌리지에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수여함.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스마트미터 설치로 인한 에너지소비 감소효과는 SSE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의 목표달성에도 도움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영국 내 모든 가정에 스마트미터 설치를 희망하고 있음.

(Energy Efficiency News, 2011.6.3)

페루, 좌파 대통령 당선에 따른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 주목

- 6월 5일 페루 대선에서 좌파진영의 오안타 우말라(Ollanta Humala)가 당선되면서 향후 페루의 시장 친화적인 에너지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우말라는 미국 Hunt Oil이 주도하는 페루 LNG 컨소시엄이 작년 6월 페루 리마 남부 뽀빠 멜초리따(Pampa Melchorita)의 LNG수출터미널을 개시한 것에 대해 반대해 왔음. 수출은 국내가스부족을 야기시킬 것이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가스가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임.
 - 따라서 일부에서는 우말라가 페루의 기존 가스계약을 폐기할 수도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족주의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이번 대선에서 우말라는 가스산업을 국유화하자는 초기 공약에서 벗어나 좀 더 중도적인 공약을 내걸었음.

(Oil Daily, 2011.6.7)